地理學論叢, 第11號, 1984年 12月, pp. 1～19.

教育機會의 地域差에 關한 研究*

朴 英 漢**

≪目 次≫

1. 序 論
(1) 研究目的과 問題의 提起
(2) 假說의 設定과 變數의 選定
2. 本 論
(1) 教育機會의 成長推移
(2) 教育機會의 地域差와 空間패턴
(3) 教育機會와 社會經濟的 空間構造
(4) 教育機會問題와 政策的 課題
3. 要約 및 結論

1. 序 論

(1) 研究目的과 問題의 提起

本 研究는 1975년 現在 韓國의 市·郡을 單位地域으로 하여 教育機會의 地域差를 分析코자 한다.

教育은 個人은 물론 國家社會의 發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教育은 個人의 潛在的 能力을 啓發시켜 所得의 向上은 물론 職業選擇의 機會를 확대시키고 社會的 上昇機會를 증대시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한다. 또한 教育은 經濟發展·政治發展·社會發展·文化發展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發展의 중요한 獨立變數가 된다.[1] 예를 들면, 教育은 노동력의 質的 向上과 科學技術 및 知識을 증대시켜 技術進步를 促進하며, 企業家의 能力向上으로 經營의 合理化와 生産要素를 증대하고 培養함으로써 經濟發展에 能動的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2] 特히 韓國에서 1960년 이후의 급속한 經濟成長은 대규모의 人的 資源에 기초를 둔 것이며, 教育은 知的이며 근면한 國民을 養産하는 데 이바지하였다[3]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서 天然資源이 풍부하지 못하고 제한된 國土空間上에서 수많은 人口가 밀집하여 생활

* 本 論文은 1984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副敎授
1) 林熺燮, 1983, 社會的 平等과 發展, 정음사, p. 84.
2) 金榮奉, N.F. 맥킨外, 1980,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韓國開發研究院, pp. 113～114.
3) Cole, D.C. and P.N. Lyman, 1971, *Korean Development*, Havard University Press, 金榮奉, N.F. 맥킨 外, 1980, *op.cit*, p. 112에서 재인용.

하는 현시점에서 금후의 國家社會發展은 人力資源의 人材化에 주력하여야 된다는 點과 福祉社會의 기초 요건인 機會均等의 실현에는 敎育의 役割이 다대하다는 點에서 敎育에 대한 多角的인 硏究의 必要性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韓國은 第1共和國 이래로 憲法에 모든 國民은 그들의 能力에 따라 均等한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明示하여 왔다. 事實 敎育의 機會均等은 出身家門이나 社會經濟的 地位, 地域, 性, 宗敎 等에 관계없이 一定水準의 교육을 모든 學齡兒童에게 同等한 就學의 機會는 물론 동등한 敎育與件下에서 동등한 質의 敎育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4]는 것을 상기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임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敎育機會의 不平等은 社會的 不平等의 要因으로 작용함은 물론 空間的 不平等의 問題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敎育과 國家社會의 發展關係를 비롯하여 敎育機會의 均等化의 實現問題 등이 社會科學의 주요한 硏究課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敎育에 대한 社會科學의 연구 추세는 社會集團에 따라 個人에게 주어지는 敎育의 質的 差異, 敎育機會와 社會的 不平等, 敎育과 社會的 移動, 敎育과 所得間의 關係 等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5] 敎育機會에 대한 地理學分野에서의 硏究는 産業社會에서 지식의 폭발과 職業의 分化過程에서 敎育과 社會發展間의 관계가 긴밀하여지고, 기회균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1960년대 이후 社會地理學의 범주내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地理學的 接近은 주로 敎育行動(Bildungsverhalten)의 地域的 相異性을 究明하여 敎育機會의 均等化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敎育行動의 空間構造와 이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자 하였다.[6]

한국에서도 社會學, 敎育學, 經濟學 等의 分野에서 敎育機會가 어느 社會階層에 어떻게 개방되며 機會不均等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점을 비롯하여 所得分配와 敎育間의 관계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社會關係內에서 敎育을 分析하려는 경험적 社會硏究에서도 社會集團間의 敎育機會問題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地域分析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다.[8] 그러나 한국에서 敎育機會問題에 대한 地域的 分析은 道間 差異를 밝히는 정도에 불과하고, 體系的인 地域的 接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市·郡을 單位地域으로 설정

---

4) 林熺燮, 1983, *op. cit.*, pp. 93～100.

5) Glennerster, H., 1979, "Education and Inequality," in Rubinstein, D., (eds.), 1979, ***Education and Equality***, 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pp. 44～56.

6) Meusburger, P., 1976, "Entwicklung, Stellung und Aufgaben einer Geographie des Bildungswesens, Eine Zwischenbilanz," ***Miteilungen der Österreichischen Geographischen Gesellschaft***, Bd. 118, 1, pp. 22～37

Meusburger, P., 1980, "Beiträge Zur Geographie des Bildungs- und Qualifikationswesens," ***Innsbrucker Geographische Studien***, Bd. 7, pp. 19～39.

7) 이러한 硏究는 이들 分野에서도 아직 큰 진전이 이룩되지 않은 듯하며, 韓國社會 속에 內在된 敎育機會問題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문간의 연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몇몇 연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金斗燮, 1977, "韓國敎育의 成長 및 社會經濟的 機能," 서울大學校 社會學硏究會, pp. 201～266.

韓國敎育開發院, 1978, 敎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78～91, 서울.

裵茂基, 1979, "敎育投資와 所得分配,"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pp. 323～411,

金榮奉, N.F. 맥긴外, 1980, *op. cit.*

金泳謨, 1982, 韓國社會階層硏究, 一潮閣, pp. 449～496.

林熺燮, 1983, *op. cit.*, pp. 82～168.

8) Peisert, H. and M. Wunberg, 1970, "Die Bedeutung von Regionen gleicher Bildungsbeteiligung für die Bildungsforschung," in ***Beiträge Zur Regionalen Bildungsplanung, Veröffentlichungen der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Bd. 60, pp. 17～18.

하여 教育機會의 地域差를 究明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를 提起하고자 한다. 첫째, 教育行動의 空間的 패턴은 國土空間上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둘째, 教育行動의 空間패턴은 一定地域의 社會經濟的 特性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 세째, 教育機會의 問題地域은 어떤 特性을 나타내고 있는가? 本 硏究에서 教育機會란 教育行動의 量的側面을 의미한다.

(2) 假說의 設定과 變數의 選定

1) 假設의 設定

세계적으로 볼때 社會經濟構造와의 관련성에서 教育行動의 地域的 分化過程을 설명하려는 教育行動의 地理學은 1960년대 이래로 社會均等問題를 비롯하여 人間資本의 重要性이 인식되고 人力의 地域的 配分과 地域發展간의 관련성이 증대되면서 활발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또하나의 자극적인 요소는 교육붐(Bildungsboom)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教育機關의 地域配分과 이의 立地計劃, 就學空間의 범위와 通學圈域의 設定問題, 地域的으로 상이한 就學機會의 조정—는 教育經濟學이나 教育社會學에 취하여온 지금까지의 方法論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空間을 대상으로 하는 地理學과 이들 學問間의 강한 유대가 필요하였던 것이다.[9] 이처럼 教育計劃과 地域發展간의 관련성이 고조되고 "Sich bilden"이 現代社會에서 人間의 基本存在機能(Grund-Daseins-Funktionen)의 하나로 정립되면서[10] 教育行動의 地域的 相異性에 대한 原因究明이 활발히 이룩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教育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決定要因은 一定地域의 教育體系 및 教育機關에의 도달거리를 비롯하여 社會 및 經濟構造라고 보고 있다.[11] 즉, 일정 지역에서 上級教育機關이 결여되거나 教育機關에의 도달거리가 확대되면 이것이 教育機會의 장애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學校에로의 도달 거리의 확대는 交通費와 숙박 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加重시키기 때문에 불리한 教育機會를 형성케한다. 教育行動은 空間的 所與(räumliche Gegebenheiten)에 의존하는 반면에 교육 기관이나 주민의 교육수준은 一定空間의 經濟構造나 發展可能性에 영향을 끼치므로 經濟 및 社會構造와 教育機會와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eipel[12]은 大學入學資格者(Abiturienten)의 출신 지역과 그들의 社會的 背景을 중심으로 教育의 社會空間構造를 분석한 결과 交通制約要素, 社會集團間의 상이한 教育動機 學校體系, 地域規模 및 産業構造 等이 教育機會의 地域差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Hartke[13]의 同一의 社會地理的 行動의 空間(Räume gleichen sozialgeographischen Verhaltens)을 재조명하려는데 있다. 한편, Peisert[14]는 저조한 教育機會密度의 空間(Räume geringer Bildungsdichte)을 설정하여 이의 特性을 究明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는 教育機會變數로서 16~19세 人口集團의 就學率을 사용하여, 일정 공간의 社會集團의 教育行動을 분석한 결과, 특히 교육 기회가 낮은 지역의 社會經濟的 背景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즉 人口的 要因(低人口密度, 인구정체성, 협소한 行政區域, 높은 農家人口率)을 비롯하여 經濟的 要因(높은 林野 및 耕地率, 낮은 土地生産性, 낮은 所得, 邊境的 經濟地理的 位置, 불편한 交通)과 學校要因(不利한 學校立地, 일방적 學校體系, 부족한 教師數) 및 宗教的 構造와 情報水準 等이 영향을 주었다고

9) Meusburger, P., 1976, *op.cit.*, pp. 11~13.
10) Ruppert, K. und F. Schaffer, 1969, Zur Konzeption der Sozialgeographie, GR. 6.
11) Meusburger, P., 1976, *op.cit.*, pp. 26~37.
12) Geipel, R., 1965, *Sozialräumliche Strukturen des Bidungswesens*, Verlag Moritz Diesterweg.
13) Hartke, W., 1959, "Gedanken über die Bestimmug von Räumen gleichen sozialgeographischen Verhaltens," *Erdkunde*, Bd. 13, pp. 426~436.
14) Peisert, H., 1967, *Sozial Lage und Bildungschancen in Deutschland*, R. Piper & CO. Verlag, München.

밝혔다.

韓國에 있어서도 同一한 敎育機會의 空間(Regionen gleicher Bildungsbeteiligung)은 유사한 經濟 및 社會的 特性을 지닐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고자 한다. 즉, 一定地域의 社會·經濟的 水準이 낮을 수록, 敎育機會의 程度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낙후된 주변 지역(distressed periphery areas)의 성격이 강할 수록 敎育機會水準의 强度도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一定地域의 社會經濟的 構造의 差異는 敎育機會의 地域差를 유발시킬 것이다.

2) 變數의 選定

上記의 假說을 檢證하기 위하여 敎育機會變數를 從屬變數로, 社會經濟的 變數를 獨立變數로 하였다.

韓國開發硏究院에서 실시한 「韓國의 社會指標」硏究에 의하면 敎育部門의 社會指標로 55個를 選定하여 산출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 敎育機會指標는 卒業生中 進學者의 比率, 各級學校의 就學率, 入學競爭率, 總人口에 對한 學校人口比率, 平均進級率, 學力水準比較 等을 포함하여 21個 變數로 구성되어 있다.[15] 本 硏究에서는 敎育機會의 量的 面을 의무 교육이 끝난 이후부터의 전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中學校 進學率과 15~19세 年齡集團의 就學率을 敎育機會變數로 選定하였다.

韓國은 해방과 더불어 1949년에 初等敎育에 대한 義務敎育이 실시되고, 1954년에서 1959년 사이에 政府가 강력히 추진해 온 義務敎育完成 6個年計劃의 성과로 적령 아동의 國民學校 就業率은 1950년에 69.8%이던 것이 1960년에는 95.3%, 1975년에는 97.2%로 확대되었다.[16] 그러므로 적령아동의 거의 모두가 의무교육을 마친 이후 上級學校에의 進學狀況을 敎育機會變數로 선정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道別 分析을 위한 中學校 進學率은 文敎統計年報(1975)를 사용하였고, 市·郡單位의 中學校 進學率은 당해연도의 國民學校 6學年 卒業者數에 대한 中學校 進學者數의 비율이다. 이것은 各道의 敎育統計年報(1976)에 수록된 자료에서 계산되었다. 高等學校의 進學率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居住地別 資料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次上級學校에 대한 敎育機會變數는 15~19세 年齡集團의 就學率을 사용하였다. 이 연령층은 高等學校와 大學에 就學할 수 있는 年齡集團에 해당된다. 本 硏究에서 15~19세 年齡集團의 就學率을 택한 또하나의 이유는 市·郡 單位의 資料가 15~19세 年齡集團으로 되어 있어, 전국 규모의 분석에 자료를 쉽게 구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間의 비교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19세의 在學生人口中에서 大學生의 비율이 1975년에 불과 2.3%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국적인 분석에서 居住地와 學生의 現住所間의 不一致로 인한 애로도 매우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발행의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1975)」에 의하여 계산된 15~19세 취학률은 이 연령 집단중에서 재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敎育機會는 어떠한 經濟·社會的 指標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全國 173個 單位地域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獨立變數를 선정하였다.[17]

ⓐ 人口要因

X_1 : 人口密度(1975)

X_2 : 人口增加率(1970~1975)

X_3 : 農家人口率(1975)

X_4 : 家口當 人口數(1975)

ⓑ 經濟要因

X_5 : 1人當 地方稅負擔額(1976)

X_6 : 1人當 1次產業生產額(1976)

X_7 : 1人當 鑛工業生產額(1976)

15) 林熺燮, 1983, *op.cit.*, pp.85~97 참조.

16) 鄭元植, 1978, "敎育의 將來," 이해영·권태환編, 한국 사회 : 인구와 발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pp.455~456.

17) 경제기획원, 1970, 1975,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文敎部, 1976, 文敎統計年報; 各道統計年報 및 郡統計年報; 韓國科學技術硏究所, 1979, 地域生產豫測模型의 開發과 適用에 관한 硏究報告書 等에서 資料를 구득하였다.

X_8 : 面積當 舖裝道路 길이(1976)

ⓒ 社會要因

X_9 : 新聞購讀人口率(1976)

X_{10} : 25세 人口 中 國卒 및 그이하人口率(1975)

X_{11} : 25세 人口 中 大卒 및 中退者人口率(1975)

ⓓ 學校要因

X_{12} : 高等學校 學生定員에 對한 中學校 學生定員(1976)

2. 本 論

(1) 敎育機會의 成長推移

우리 나라가 制度上으로 新學制를 실시하여 官學을 세운 것은 1894년 甲午更張부터이며, 高宗이 1895년 2월에 전국민에게 敎育詔書를 내림으로써 近代的인 敎育制度를 수립하게 되었다.[18] 韓國에서 敎育이 大衆性을 띄며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11年 朝鮮敎育令이 公布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日帝의 敎育政策은 初等敎育을 통하여 日帝에 同化시키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中學敎育이나 高等敎育은 억제되어 왔다.[19] 해방과 더불어 初等敎育에 대한 義務敎育이 실시되고, 이로 인한 初等敎育의 擴大와 함께 中等敎育人口도 196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서 급격한 팽창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中學校 進學率이 1966년에 54.1%이던 것이 1970년에는 66%에 달하고, 1975년에는 77.2%로 상승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學校 年齡集團에 해당되는 12~14세 인구의 就學率은 1966년에 63%이던 것이 1975년에는 82.5%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中學敎育機會의 상승은 日帝下에 억제되었던 中等敎育機會가 制限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中等敎育에 대한 敎育熱望이 가속화되고, 또 한편으로 1968년에 채택된 中學校無試驗制의 실시로 국민 학교 졸업자 중에서 극단적인 능력의 결핍자와 極貧者를 제외하고는 中學校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20] 한편, 高等學校에의 進學率도 1966년에 65.7%에서 1975년에는 74.7%로 증가되었고, 高等學校의 年齡集團에 해당하는 15~17세의 就學率도 1966년에 31.4%에서 1970년에는 40.9%로, 1975년에는 52.4%로 증가됨으로써, 이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취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극히 제한되었던 高等敎育의 機會도 해방과 더불어 급속히 상승하였다. 즉 18~24세 인구의 취학률

표 1. 연령별 취학인구 및 취학률, 1966~1975

(단위 : 千名, %)

		1966		1970		1975	
		취학인구	취 학 률	취학인구	취 학 률	취학인구	취 학 률
男女合	12~14세	1,241	63.0	1,833	74.1	2,302	82.5
	15~17세	514	31.4	823	40.9	1,406	52.4
	18~24세	298	8.8	353	9.8	576	12.6
男 子	12~14세	705	69.1	1,018	79.6	1,256	86.7
	15~17세	326	38.7	495	47.9	818	59.1
	18~24세	217	12.3	242	13.2	388	16.5
女 子	12~14세	536	56.3	816	68.2	1,047	77.9
	15~17세	187	23.7	329	33.4	588	45.2
	18~24세	81	5.0	110	6.3	188	8.4

資料 : 경제기획원, 1966, 1970, 1975,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8)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1, 서울敎育史(上), 서울, pp. 82~85.
19)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1981, *op.cit.*, pp. 129~133.
20) 鄭元植, 1978, *op.cit.*, pp. 457~458.

은 1966년에 8.8%이던 것이 1975년에는 12.6%로 늘어났다. 그러나 고등 교육에의 기회는 아직도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敎育機會의 확대는 政府의 政策的인 배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고래로 學問을 숭상하는 유학의 영향과 함께 學校敎育에 대한 높은 敎育熱과 經濟成長으로 인한 所得의 增大도 작용하였으리라 본다. 特히 제한된 좁은 國土內에서 高密度社會를 이룬 韓國에서 敎育機會의 增大는 非人間資本理論의 觀點인 地位葛藤理論(status conflict theory)과 더욱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1]

敎育機會의 成長推移는 性과 地域單位에 따라 상이하다. 〈표 2〉는 1970~1975년 사이에 나타난 市·郡別 就學率의 增加推移이다. 15~19세 年齡集團의 就學率은 1970년에 33.3%이던 것이 1975년에는 42%를 초과하여 불과 5년 사이에 26.3%의 增加率을 보였다. 市部地域과 邑部地域은 全國平均增加率에 미달한 반면 郡部와 面部에서는 급속한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인 面部에서 同期間에 남자는 32.3%, 여자는 무려 73.5%의 성장 추세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純農村地域에서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된 것은 女性就學率의 상승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面部에서의 女性就學率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6.2%에 머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 年齡集團에서 敎育機會의 확대 추세가 가장 낮은 集團은 市部에 살고 있는 男性集團이다. 同期間 동안에 나타난 변화를 종합하면, 이 연령층의 女性이 農村地域에 거주할수록 취학의 기회는 확대되었고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男性에게는 교육기회의 확대폭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금후에도 郡部의 증가율이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15~19세 취학률의 증가 추이 (단위 : %)

	1970년 취학률	증가율(1970~1975) 전 체	남 자	여 자
전 국	33.28	26.26	21.39	33.53
시 부	41.47	14.73	13.65	16.42
군 부	24.67	42.08	30.10	63.78
읍 부	35.16	21.87	16.84	29.65
면 부	22.35	46.35	32.28	73.50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75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2) 敎育機會의 地域差와 空間패턴

해방과 더불어 韓國에서는 전례없는 敎育의 팽창을 가져와서 都市와 農村을 포함하여 敎育機會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면 敎育機會의 地域差는 어떻게 變化되었으며, 敎育機會의 空間패턴은 어떻게 構造化되고 있는가를 分析하고자 한다.

1) 敎育機會의 地域差

1970년대 전반기 동안에 農村地域에서 15~19세 연령층의 就學率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都市와 農村間의 敎育機會差異도 줄어들었다.

〈표 3〉은 1970년과 1975년의 聚落類型別就學率과 이들의 道間 隔差程度를 나타낸 것이다. 聚落集團 間의 地域別 隔差를 비교하기 위하여 相對分散度를 고려한 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였다. 이 係數에 의하면 兩年度 사이에 취학률의 지역간 隔差程度는 道間 뿐만 아니라 各道의 市部間, 郡部間, 邑部間 및 面部間에도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중에도 特히 道間 就學率의 不平等度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고, 各道의 市部間의 차이 보다 郡部間의 隔差가 더욱 감소되었다. 그리고 聚落集團別 道間 就學率의 不平等度는 邑部間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市部間이며, 가장 격차가 큰 취락집단은 純農村地域인 面地域間이다. 聚落集團의 지역적 不平等度의 차이는 社會經濟的 特性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邑은 농촌 서어비스 中心地로서의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취학률의 지역간 격차가 큰 面地域은 農業生産性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都市와의 접근도에 따라 社會集團의 구성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各

21) 金榮奉, N.F. 맥긴外, 1980, *op.cit.*, pp.136~146.

표 3. 聚落類型別 15～19세 就學率과 道間隔差

(%)

道別	1970 全體	1970 市部	1970 郡部	1970 邑部	1970 面部	1975 全體	1975 市部	1975 郡部	1975 邑部	1975 面部
서울·京畿	37.15	39.71	27.73	33.61	26.30	44.00	45.56	41.47	36.28	37.39
江原	26.31	43.05	20.33	29.67	16.90	34.44	51.64	36.25	23.38	27.84
忠北	28.74	49.53	22.93	34.49	20.88	37.36	53.71	41.93	29.10	31.74
忠南	30.14	41.77	26.40	39.43	22.51	41.34	50.01	46.94	34.39	38.12
全北	31.73	49.72	24.96	36.92	23.07	40.98	53.56	45.86	33.56	35.41
全南	31.51	52.08	20.80	32.97	18.58	41.04	59.38	42.39	27.73	30.26
慶北	30.75	41.17	23.65	34.04	21.65	41.36	50.06	40.77	32.81	34.85
釜山·慶南	34.41	39.02	27.83	38.95	25.71	42.78	44.27	47.42	38.02	39.87
濟州	39.30	49.24	33.72	38.49	30.79	49.81	58.52	47.68	42.67	44.61
全國	33.28	41.47	24.67	35.16	22.35	42.02	47.58	42.85	32.71	35.05
變異係數	0.127	0.112	0.164	0.092	0.184	0.102	0.099	0.145	0.088	0.175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75 총인구 및 주택보고

道에서 都市와 農村地域 間의 취학률 차이가 클수록 그 지역의 취학률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敎育行動空間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취학률의 隔差도 상승하고 있다. 즉 1975년 道單位地域으로 설정하였을 때, 道間의 變異係數는 10.2%이던 것이 市·郡을 單位地域으로한 지역간의 變異係數는 24.38%로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취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安東市 : 64.89%)과 가장 낮은 지역(平昌郡 : 17.38%)간의 범위는 무려 47.51%에 달한다. 都市間의 범위는 38.7%로써 最下地域은 城南市(26.8%)이고, 農村地域간의 범위는 30.62%로써 最高地域은 南海郡(48.3%)이다. 그리고 중학교 진학률의 變異係數는 13.07%로써, 15～19세의 취학률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연령수준이 높고 상급학교에 이를수록 지역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敎育機會의 空間패턴

敎育機會의 空間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道와 市·郡을 單位地域으로 하였으며, 中學校 進學率과 15～19세 就學率을 分析指標로 선정하였다. 敎育變數에 의한 地域區分은 單位地域의 平均値로부터의 分散度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上位水準 : $X_i \geq M_x + \frac{\sigma_x}{2}$

中位水準 : $M_x - \frac{\sigma_x}{2} \leq X_i < M_x + \frac{\sigma_x}{2}$

下位水準 : $X_i < M_x - \frac{\sigma_x}{2}$

X_i : 單位地域의 敎育機會

M_x : 單位地域의 敎育機會 平均値

σ_x : 單位地域 敎育機會 標準偏差

11個道를 單位地域으로 한 敎育 機會의 地域區分은 〈표 4〉와 같다. 中學校 進學率은 서울이 90.1%로서 가장 높고, 全南이 64.9%로서 가장 낮다. 上位水準地域은 서울, 釜山, 濟州이며, 中位水準地域은 京畿, 忠南, 慶北, 慶南이다. 下位水準地域은 全南을 위시하여 江原, 全北, 忠北이다. 中學校 進學率의 空間패턴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濟州道를 제외하면 서울과 釜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進學率이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5～19세 취학률이 가장 높은 道는 濟州道이며, 가장 낮은 道는 江原이다. 上位地域은 서울, 濟州道이며 下位地域은 京畿, 江原, 忠北으로 分類되고 있다. 濟州道를 제외하면, 서울에 인접한 地域이 가장 낮은 集團에 속하며, 그 나머지 道들은 中位集團에 소속된다. 下位集團의 하나인 京畿道는 都市와 農村間의 격차는 매우 낮은편이나 市部의 취학률이 11

표 4. 敎育機會水準의 地域區分(1975)

	上位水準地域		中位水準地域		下位水準地域	
	限界	地域	限界	地域	限界	地域
중학교 진학률	90.06 ≥x_i≥ 81.38	서울 부산 제주	72.86 ≤x_i< 81.38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부산	64.94 ≤x_i< 72.86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취학률 (15~19세)	49.81 ≥x_i≥ 43.70	서울 제주	39.44 ≤x_i< 43.70	경남 충남 전북 전남 경북	34.44 ≤x_i< 39.44	경기 강원 충북

個道 중에서 가장 낮다. 이것은 서울 주변에 새로 형성된 都市들이 農村地域으로부터 많은 인구를 흡수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외의 下位地域은 都市와 農村間의 취학률의 편차가 큰 편에 속한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市部의 취학률이 全國 市部 平均就學率보다 높고, 郡部의 就學率은 전국 평균의 그것 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市·郡을 單位地域으로 한 中學校 進學率의 地域區分에 의하면 上位地域의 進學率은 79.01% 이상이고, 中位地域은 進學率의 범위가 69.31%에서 79.01% 이하이며, 下位地域은 69.31%이하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位地域은 全國 173個 單位地域의 34.1%에 달하며, 29個 市와 30個 郡으로 구성되어 있다. 分散的 形態를 취하는 都市를 제외한 郡地域의 分布를 보면, 京畿 8郡, 慶北 10郡, 慶南 6郡으로서 3個道가 이 集團에 속한 郡의 80%를 차지한다. 上位地域의 空間的 分布는 서울과 天安을 잇는 西部地域을 비롯하여 釜山과 大邱에 걸친 嶺南의 中央部에 집중되어 있다. 5個市와 51個郡으로 구성된 中位地域은 전국 市·郡의 32.4%에 달한다. 郡의 분포는 京畿 8個, 忠南과 慶北이 各各 11個, 慶南이 9개로서, 淸州와 大田·金泉을 잇는 국토의 중앙부와 嶺南의 東部地域에 集中 分布하고 있다. 1個市와 57個郡을 포함한 下位地域은 33.5%에 달한다. 57個郡 中에서 江原에 12個, 全北에 10個, 全南에 21個가 分布되며, 空間的 측면에서 보면 山間地帶인 江原과 忠北의 北東部 및 慶北의 北部를 비롯하여 國土의 南西部에 集中되어 있다. 따라서 中學校 進學率에 의한 敎育機會의 空間패턴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을 中心으로한 首都圈과 釜山—大邱를 잇는 嶺南의 中心部로부터 멀어질 수록 敎育機會水準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配列을 이루고

표 5. 敎育機會의 區分地域別 市·郡分布(1975)

	中學校進學率			15~19세 就學率		
	市數	郡數	計	市數	郡數	計
上位地域	29	12	41 (34.10)	29	12	41 (23.70)
中位地域	4	72	76 (32.37)	4	72	76 (43.93)
下位地域	2	54	56 (33.53)	2	54	56 (32.37)
合計	35	138	173 (100.00%)	35	138	173 (100.00%)

있다고 볼 수 있다.

15~19세의 就學率에 의한 地域分類 結果 上位地域의 취학률은 42.28% 이상이며, 中位地域은 33.08%~42.28%, 下位地域은 33.08% 이하의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上位地域의 취학률의 下限은 全國平均就學率과 거의 일치하며, 下位集團의 上限은 全國面部 就學率과 유사한 數値를 보인다. 〈표 5〉와 〈그림 2〉에서와 같이 29個市와 12個郡으로 구성된 上位地域은 全國 市·郡數의 23.7%에 달한다. 12個郡 中에서 慶南이 5個郡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때 點狀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特히 地域平均에다가 1 標準偏差를 더한 最上位地域(취학률 46.78% 이상)은 서울을 비롯하여 中心地 機能이 강한 22個 地方中小都市와 휴전선에 접한 철원, 화천과 남해의 3個郡을 포함하여 25個 地域이다.

中位地域은 서울 주변의 의정부, 안양을 비롯하여 속초, 울산의 4個市와 72個郡으로 구성되어, 全體 單位地域의 43.93%를 차지한다. 各道의 郡中에서 忠南, 慶北, 慶南은 1/2 이상이 이 集團에 속한다. 中位地域은 대체로 西海岸과 河川流域地帶에 集中되고 있다. 성남과 부천市를 비롯하여 54個郡으로 구성된 下位地域은 全地域數의 32.4%에 달하며, 各道의 郡中에서 1/2이상이 이 集團에 속한 道는 江原, 全北, 全南이다. 下位地域의 空間的 分布는 太白山脈이 뻗은 江原道의 嶺西地方과 忠北 및 慶北의 北部地域, 소백산맥의 서측지역 및 全南의 도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지형적 제약으로 고립도가 높은 山間地帶로서 교통의 제약이 크고 인구밀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濟州道의 1市 2郡은 2개의 敎育機會變數에 의한 지역구분에서 모두 上位地域에 속하고 있다.

中學校 進學率과 15~19세 就學率의 空間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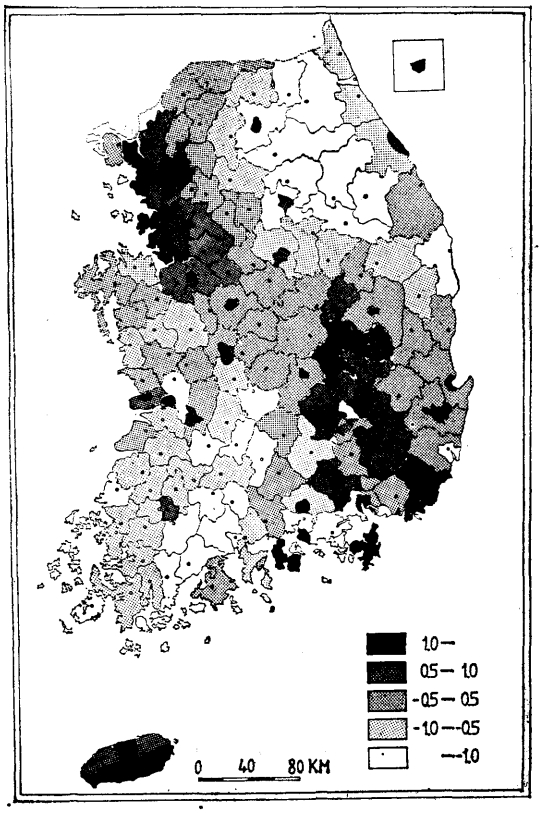

그림 1. 標準點數에 의한 中學校 進學率의 分類(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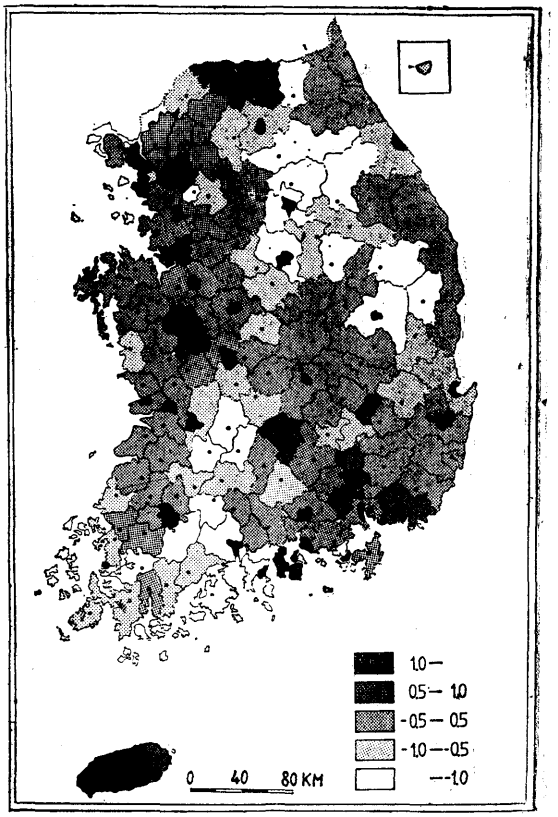

그림 2. 標準點數에 의한 15~19歲 就學率의 分類(1975)

布를 비교하면 몇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5~19세 취학률에 의한 上位地域은 중학교 진학률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分散的이며 地域數도 축소된 반면에, 中位地域의 數는 확대되었다. 이것은 年齡集團이 높아지고 上級學校로 나아갈수록 높은 敎育機會의 可能性을 지닌 지역은 일부 지역에 집중됨을 뜻한다. 둘째, 京畿와 嶺南地方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中學校 進學率의 上位地域이 취학률에 있어서는 中位地域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 역시 敎育機會의 都市集中性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세째, 江原과 全南北地域을 비롯하여 西海岸地帶에 分布된 中學校 進學率의 下位地域의 多數가 15~19세 취학률에서는 中位地域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下位地域數는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人口密度가 비교적 높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연령층의 移出率이 높아짐으로써 15~16세 연령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3) 敎育機會와 社會經濟的 空間構造

敎育機會의 地域差는 地域間의 社會經濟的 不平等의 표현이라는 基本假說을 검증하기 위하여 敎育行動의 空間패턴은 一定地域의 社會經濟的 特性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敎育機會의 空間패턴과 社會經濟空間과의 일치성의 정도를 살펴보고, 敎育機會는 어떠한 社會經濟的 變數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敎育機會와 社會經濟空間

敎育機會는 場所的 差異에 따라 달라진다. 즉, 成長力이 집중된 核心地域(core area)에서 생활하느냐 또는 周邊地域(periphery area)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敎育機會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Peisert[22]는 周邊經濟地理的 位置(Periphere Wirtschaftsgeographische Lage)가 저조한 敎育機會空間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고, Geipel[23]은 活動空間(Aktivraum)과 受動空間(Passivraum)에 따라 교육 행동의 차별성이 나타남을 구명코자 하였다. 여기에서의 受動空間은 經濟的인 측면에서의 정체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두뇌 유출이 발생되는 空間을 의미한다. 本 硏究에서도 敎育機會와 社會經濟空間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地域成長過程에서 발생하는 二重的 空間構造인 成長核心地域(core area)과 停滯周邊地域(periphery area)을 설정하고자 한다.

社會經濟空間의 分類에 사용된 指標는 全國의 道別 人口構成比에 대한 國民總生產의 道別 占有比와 道別 大學卒業人口의 增加率이다. 全國에 대한 일정 지역의 국민총생산액의 占有比가 人口構成比를 초과한다면, 이 지역에는 地域總生產額의 잉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高級人力의 增加率이 全國平均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것은 人口成長에 못지 않게 成長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은 兩指標에 의한 地域別 狀況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잉여 지역이면서 1970년과 1975년 사

표 6. 道別 人口 및 地域總生比重(1975)

	국민총생산점유비 (A)	인구구성비 (B)	A/B	대졸인구증가율 (1970~1975)
서 울	30.0	19.9	1.51	43.39
경 기	11.9	11.6	1.03	52.43
강 원	3.9	5.4	0.72	13.32
충 북	3.8	4.4	0.86	32.69
충 남	6.3	8.5	0.74	30.83
전 북	5.2	7.1	0.73	28.09
전 남	8.3	11.5	0.72	24.93
경 북	11.7	14.0	0.84	39.77
경 남	9.8	9.5	1.03	42.21
부 산	8.0	7.1	1.13	40.97
제 주	1.1	1.2	0.92	43.58
전 국	100.0	100.0	1.00	40.40%

資料 : 金安濟, 1982, "地域經濟水準測定에 關한 硏究," 環境論叢, 第10卷, p.22.
경제기획원, 1970, 1975, 총인구및 주택조사보고

22) Peisert, H., 1967, *op.cit.*, pp.137~139.
23) Geipel, 1965, *op.cit.*

이에 大學卒業人口의 增加率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지역을 成長核心地域이라고 命名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京畿, 釜山, 慶南이 이 부류에 속한다. 4個 地域中에서 慶南만이 이 기간 동안의 全國平均 人口增加率에 미달하였으며, 釜山과 慶南地域

표 7. 經濟 및 人口質의 變化에 의한 地域分類

	대학졸업인구의 증가율(1970~1975)	
	전국 평균 증가율 이상	전국 평균 증가율 이하
경제잉여지역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제부족지역	제주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은 서울과 京畿地域 보다 成長核心地域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나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고 思料된다. 이 4個 地域에 全國大卒이상의 高級人力의 75.1%가 집중되고 있으며, 1970년에 비하여 1975년에는 그 集中率이 加重되고 있다.

濟州道는 大卒人口 및 總人口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여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地域總生産額의 잉여분이 없는 지역이다. 두개의 指標가 모두 미달되는 慶北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江原地域은 周邊停滯地域이라고 볼 수 있다. 特히 江原, 全北, 全南地域은 周邊地域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各道別 中學校 進學率과 15~19세 就學率의 空間패턴을 社會經濟間構造와 對比하여 볼때, 兩者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만 京畿道는 就學率에 있어서 下位水準地域에 속한다. 이는 이지역의 15~19세 연령집단 중에서 經濟活動人口比率(50.03%)이 全國平均(46.95%)보다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地域成長과 함께 이 연령층의 經濟活動人口가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연령집단의 취학률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道單位地域에서 敎育機會水準은 周邊地域의 성격이 강할 수록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市·郡單位의 敎育機會水準이 成長核心空間과 周邊停滯空間에 어떻게 配分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敎育機會와 社會經濟空間 間의 관련성의 정도를 더욱 세밀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道單位地域 內部에서도 敎育機會水準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社會經濟的 特性도 道單位內에서 달라지나 자료구득의 애도로 道를 單一地域으로 선정한데에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中學校 進學率의 水準은 〈표 8〉에서 볼 수

표 8. 社會經濟地域別 中學校 進學率地域의 分布(1975)

교육기회수준 / 사회경제공간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계	
	시 수	군 수	시 수	군 수	시 수	군 수	시수	군 수
성장 핵심지역	12	14 (37.8)	1	17 (45.9)	1	6 (16.2)	14	37 (100.0%)
주변 정체지역	16	14 (14.1)	4	34 (34.3)	0	51 (51.5)	20	99 (100.0%)

표 9. 社會經濟地域別 就學率 地域의 分布(1975)

교육기회수준 / 공간지역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계	
	시 수	군 수	시 수	군 수	시 수	군 수	시수	군 수
성장 핵심지역	9	7 (18.9)	3	24 (64.9)	2	6 (16.2)	14	37 (100.0%)
주변 정체지역	19	3 (3.0)	1	48 (48.5)	0	48 (48.5)	20	99 (100.0%)

있는 바와 같이 성장 핵심지역내의 14個市 중에서 12개가 上位地域에, 주변 정체지역에서는 20個市 중에서 16個가 上位地域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都市의 경우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農村地域인 郡의 分布를 보면, 성장지역에서는 上位水準地域의 비율이 높고 下位地域의 비중이 낮은 반면, 주변지역에서는 下位地域이 이 지역에 속한 郡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15~19세 취학률의 경우도 進學率의 추세와 유사하다. 다만 성장지역에서 大都市周邊에 형성된 新生都市의 교육기회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주변지역의 20개도시 중에서 19개가 上位地域에 속해 있다. 주변지역에서의 都市와 農村間의 敎育隔差深化는 농촌의 낙후를 더욱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 상기의 분석에서 대체로 社會經濟空間의 構造가 敎育機會水準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敎育機會와 社會經濟變數와의 關係

一定地域의 敎育機會水準과 社會經濟的 變數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多相關關係分析法이 이용되었다. 편의상 0.05 有意水準에서 채택된 相關係數가 0.2~0.5 미만은 微相關으로, 0.5 이상을 高相關으로 규정하였다. 〈표 10〉은 敎育機會水準과 獨立變數間의 相關關係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敎育機會變數와 獨立變數間의 相關分析

종속변수 / 독립변수	중학진학율	15~19세 취학율
인구밀도 (X_1)	0.45700	0.45374
인구증가율 (X_2)	0.46867	0.31898
농가인구율 (X_3)	−0.54579	−0.56768
가구당인구수 (X_4)	−0.52297	−0.45188
1인당지방세부담액 (X_5)	0.61747	0.51923
1인당1차산업생산액 (X_6)	−0.32830	−0.43567
1인당광공업생산액 (X_7)	0.18208	0.09805
면적당포장도로 (X_8)	0.39771	0.40031
신문구독인구율 (X_9)	0.46566	0.41301
25세이상 인구중 국졸 및 그이하비율 (X_{10})	−0.59600	−0.59676
25세이상 인구중 대학중퇴 및 졸업자비율 (X_{11})	0.57105	0.62233
고교생 1명당 중학생수 (X_{12})	−0.33416	−0.37859

人口要因: 人口要因에 속한 4個의 獨立變數中에서 農家人口率이 高相關을 나타내었다. 즉 農家人口率이 높은 지역일수록 敎育機會는 더욱 낮아졌다. 이것은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敎育機會 隔差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진학률에 비하여 15~19세 연령층의 취학률이 다소 높은 相關을 보인 것은 上級學校에 이를수록 農村地域에서의 敎育機會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家口當 人口數와 중학교 진학률이 負의 高相關을 보인 데 비하여 15~19세 취학률과는 負의 微相關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家口當 人口數가 많을수록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찌기 진학을 포기하는 數가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그외에, 중학교 진학률과 人口密度 및 人口增加率은 0.45이상의 관계를 가지며, 15~19세 연령층의 취학률에 있어서는 人口密度가 高相關을, 人口增加率이 微相關을 보인다. 上級學校에의 敎育機會는 인구밀도가 높은 都市地域과 관련성이 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釜山, 大邱, 大田 等의 大都市와 工業化 地域이 높은 人口增加率을 보인 것과 관련시켜 볼때, 人口密度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地域는 地方中小都市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經濟的 要因: 經濟要因의 3가지 變數 가운데 가장 높은 相關을 보인 것은 1인당 地方稅負擔額이다. 이것은 住民의 經濟力이 敎育機會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방세 부담액과 중학교 진학률 변수와는 0.62의 高相關을, 15~19세 취학률과는 0.52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주민세 부담액의 공간분포와 교육기회의 공간 패턴을 대비시켜 보았을 때(그림 1,2,3 참조), 주민세 부담액이 높은 집단을 이룬 경기지역은 역시 높은 중학교 진학률을 나타낸데 대하여 15~19세 취학률은 주민세 부담액에 비하여 높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이와같은 공간적 불일치가 상관관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思料된다. 이것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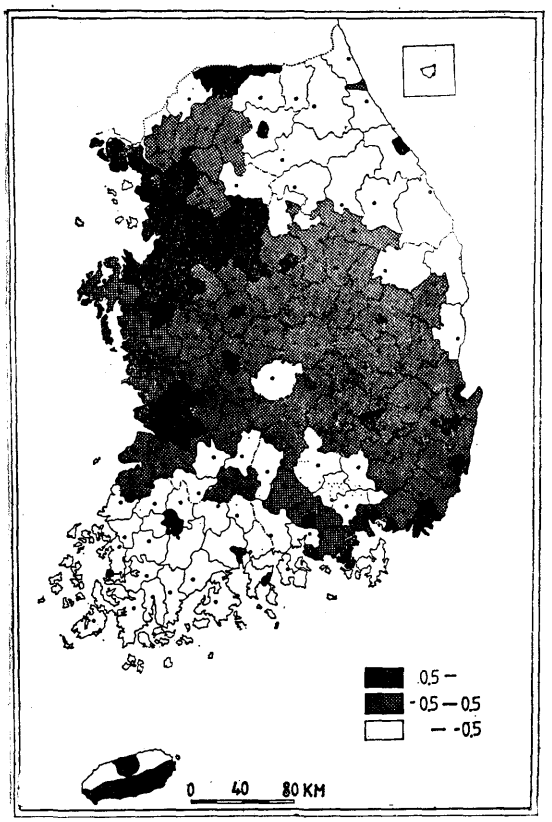

그림 3. 住民 1人當 지방세 부담액(1976)

민세 부담액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촌지역에서는 상급학교에의 교육기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외에, 1인당 1차산업 생산액과 교육기회 변수 사이에 負의 微相關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교육기회가 農家人口率과 負의 相關을 이룬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광공업 생산액과는 正의 關係에 있으나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광공업의 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들 연령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생산 근로자 계층의 낮은 교육 기회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포장도로율도 微相關을 보인다.

社會 및 學校要因 : 일정 지역의 敎育水準과 교육기회 간에는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졸 인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기회는 높게 나타난다. 즉, 高學歷人口의 集中은 어느 다른 變數 보다도 교육기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급학교에의 교육기회가 더욱 높은 연관을 갖고 있다. 그외에 신문구독 인구율과도 微相關을 보여주고 있다. 學校要因으로 선정한 고교생 1명당 중학생수와도 微相關關係를 가진다. 즉, 일정 지역의 고등학교 정원이 중학생에게 개방되는 폭이 넓을 수록 교육기회는 높아지고 있다.

上記의 相關分析에서 敎育機會變數와 0.5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獨立變數는 農家人口率을 비롯하여 1인당 주민세 부담액과 敎育水準變數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이들 세 獨立變數間에도 강한 相關性을 보이는 것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敎育機會水準이 낮은 地域은 所得과 敎育水準이 낮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의 대다수가 農民으로 구성된 純農村地域일수록 敎育機會水準이 낮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다.

표 11. 社會經濟變數間의 相關係數

	X_3	X_5	X_{10}
X_5	−0.59840	—	
X_{10}	0.93345	−0.70116	—
X_{11}	−0.87122	0.73120	−0.91849

이와 같은 特性이 강하면 敎育機會가 낮아지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부담능력과 교육 열망의 程度가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程度의 차이가 地域에 따라 상이할 때 敎育機會의 地域隔差는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成長地域과 周邊地域 間에 교육비 부담능력과 교육열망의 차이가 뚜렷하다면 양지역간의 敎育行動도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各地域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는 우선 기존의 연구와 각종 문헌자료에 의존하고자 한다.

교육비의 부담능력은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라 상이함을 몇몇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각급 학교별 學生負擔 1人當 敎育費를 보면, 1974년 현재 중학교는 65,513원, 고등학교는 86,166원, 대학교는 262,646원이다.[24] 이처럼 상급 학교에 이를수록 교육비의 부담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제1차적으로 소득과 교육기회간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이것을 소득계층별 學生 1人當 私敎育費가 家計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시켜 보면, 소득이 敎育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뚜렷이 알 수있다. 즉, 1977년에 人文高等學校의 경우, 月所得 5萬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7.7%, 月所得 31萬원 이상의 高所得集團에서는 2.3%를 차지하며, 大學의 경우에는 前者의 集團에서는 22.1%, 後者의 集團에서는 4.3%를 차지한다.[25]

또한, 子女敎育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에서 都市와 農村間의 현격한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都市勤勞者와 農家의 平均所得에 대한 學父母의 總敎育費 負擔比率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各 1名씩 교육시킬 경우에, 都市勤勞者가 平均所得 중에서 敎育費로 지출하는 비율은 43.3%인데 비하여, 農家의 경우에는 무려 62.1%에 해당된다.[26] 農村地域은 都市地域에 비하여 所得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場所的 差異로 말미암아 하숙비, 교통비 등의 교육비의 추가부담으로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지의 농촌지역은 더욱더 敎育機會水準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同一階層에 속한다할지라도 도시에 비하여 農村의 교육기회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所得階層別 高等學生 該當家口의 在學生 比率을 보면 同一所得階層에서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敎育機會의 差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만이 敎育機會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子女敎育에 대한 열망도도 職業과 敎育水準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韓國開發硏究院의 社會統計調査[27]에 의하면 家口主의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子女에게 희망하는 敎育程度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家口主의 敎育水準이 國卒인 경우에 그들의 子女에게 大學敎育을 시키고 싶은 비율은 아들에게는 39.2%이고, 딸에게는 16.9%인데 비하여 家口主의 敎育水準이 高卒인 경우에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 비율은 78.9%이고 딸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고 싶은 비율도 53.3%에 이른다. 한편, 農業·畜産·林業從事者들이 그들의 子女를 大學敎育까지 시키고 싶은 비율은 아들의 경우 30%, 딸의 경우 10% 정도이며, 生産關聯職從事者들은 아들의 경우 57%, 딸의 경우에는 33%에 달한다. 이와같은 農民의 保守的 思考도 農村地域의 敎育機會水準의 向上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2. 所得階層別 高等學生 該當家口의 在學生比率(1974)

	도 시			농 촌		
	해당가구수	재학생수	%	해당가구수	재학생수	%
0원	5,579	2,739	49.1	2,116	508	24.0
30,000원 미만	134,358	36,461	27.1	316,896	37,987	12.0
30,000~60,000원미만	381,901	156,931	41.1	422,166	90,759	21.5
60,000~100,000원미만	181,666	96,895	53.3	144,387	43,645	30.2
100,000~150,000원미만	64,801	46,227	71.3	33,682	13,514	40.1
150,000원 이상	36,235	27,050	74.7	12,111	6,273	51.8
계	804,540	366,303	45.5	931,358	192,686	20.7

註) 高等學生의 該當家口數는 15~17歲 子女를 가진 家口數임.
資料 : 裵茂基, 1979, *op. cit.*, p.375.

24) Kim, Yungbong,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KDI Working Paper 7605*, Seoul, p.37.
25) 韓國敎育開發院, 1979, 敎育財政의 現況과 問題, 서울, p.122.
26) 林熺燮, 1983, *op.cit.*, pp.127~128.
27) 韓國開發硏究院, 1977, 社會統計調査, 裵茂基, 1979, *op.cit.*, pp.367~370에서 재인용.

따라서, 所得 및 敎育水準과 職業構成의 地域間 差와 社會經濟的 空間構造로 인한 場所的 特性의 差異가 敎育機會의 地域差를 유발하는 基本要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4) 敎育機會問題와 政策的 課題

國土空間上에 전개된 敎育機會의 問題는 社會經濟的 空間構造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敎育機會問題에 대한 政策的 課題는 저조한 敎育機會空間을 개선하여 교육을 향상시킴으로서 地域的 不平等을 最小化하는 것이다. 地域政策의 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제지역의 파악이다. 問題地域은 단순히 敎育機會가 낮은 지역일수도 있고, 교육기회가 社會經濟的 水準에 비하여 과소평가되는 지역일수도 있다. 前者는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後者의 地域을 찾아내기 위하여 一定地域의 社會經濟的 特性을 대변하는 所得變數와 敎育機會變數 間의 標準殘差分析을 행하였다.

〈그림 4〉는 中學校 進學率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간의 標準殘差를 類型化한 것이다. 敎育機會가 所得에 비하여 오히려 과대평가된 標準殘差 1이상인 지역은 김천, 진주, 마산, 충무, 삼천포 등의 中小都市를 위시하여 선산, 의성, 칠곡, 청도, 의령, 함안, 남해, 거제등으로 영남의 중앙부에 분포하고 있다. 그외의 地方中心都市들도 正殘差를 나타내고 있다. 敎育機會가 所得에 비하여 과소평가된 地域은 급속한 都市化와 工業化로 인하여 많은 인구를 끌어들인 成長核心地域의 都市들—서울, 부산 울산, 성남—이다. 이와 반대로 周邊停滯地域의 都市들은 正殘差地域이며, 農村地域은 負殘差地域이 거의 대부분이다.

15～19세의 취학률과 地方稅 부담액간의 殘差도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중학교 진학률의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다만 嶺南地方에 형성되었던 1 이상의 正殘差地域이 사라지고, 工業化에 의한 成長都市와 서울 周邊都市들이 負의 殘差를 보이는 대신에 中心地機能이 강한 地方中小都市들이 正의 殘差를 나타내었다. 農村地域의 負殘差地域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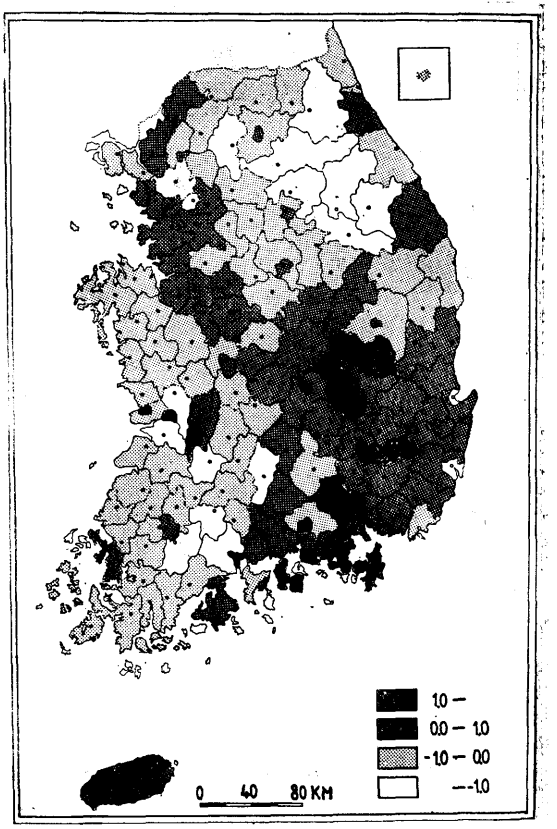

그림 4. 中學校 進學率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간의 標準殘差

강원도의 남부, 경북의 북부 및 충북의 북동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敎育機會變數와 所得間의 殘差分析을 종합하면, 周邊地域內의 負의 殘差地域은 산간·도서지역에 분포하며 교육기회수준도 下位集團에 속한다는 점과 核心地域內의 成長速度가 빠른 도시들이 負의 殘差를 보인다는 점이다. 後者는 단기간에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移入된 현상과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社會階層的 分析을 통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림 6〉에 나타난 것처럼 敎育機會가 下位集團에 속하면서 심한 負의 殘差를 보이는 農村地域 중에서 都市와 접경한 郡을 제외한 地域은 소위 敎育危機地域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周邊地域內에서 林野面積이 3/4이상을 차지하는 山間 및 도서지역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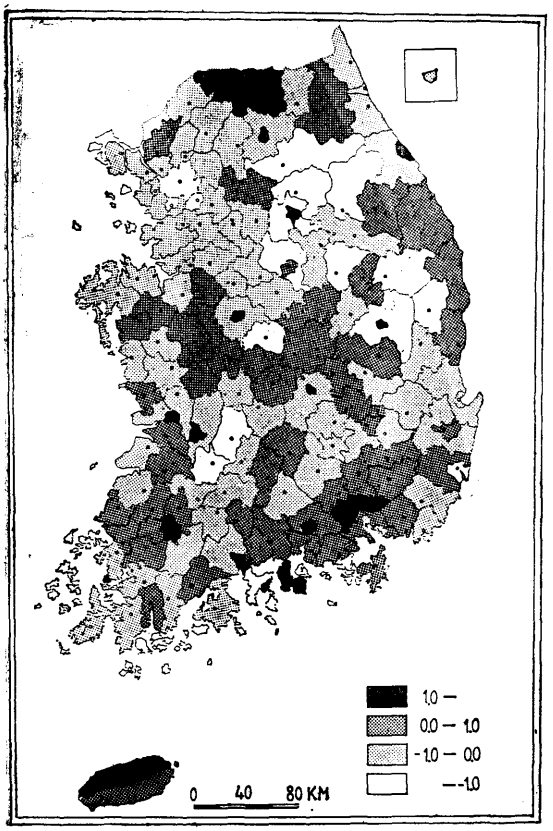

그림 5. 15~19歲 就學率과 地方稅 부담액 간의 殘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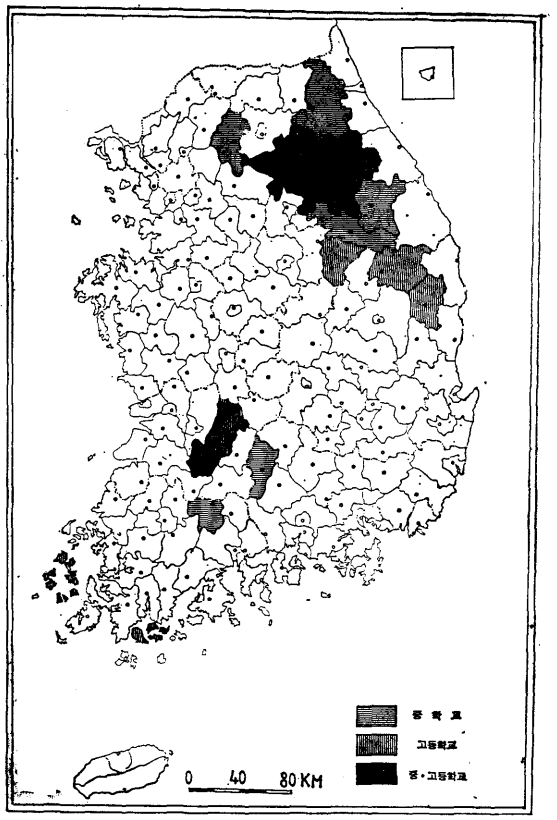

그림 6. 교육위기지역

하며 人口密度가 희박하고 大都市로부터의 접근도가 가장 낮은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지역에 대한 政策의 수립은 매우 어려우나 몇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敎育機關의 立地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學校에의 도달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를 分散立地시키거나 학교 버스를 운행하여 무임승차시키는 방법이다. 學校의 分散立地는 인구가 희박한 山間地域에서 學校規模가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敎師의 순회교육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敎育財政을 확보하여 公敎育費의 부담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세째, 이들 지역에 대한 社會經濟的 空間構造의 變化를 유도할 수 있는 政策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전반에 걸친 地域計劃과 결합되어야 한다. 敎育과 社會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 지역에서 교육받은 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産業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또한 敎育도 이러한 産業과 관련되어야 하는 産學協同體制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地域住民의 所得을 向上시키고 주민의 교육 열망을 자극하여 知的 水準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地域敎育政策의 수립은 地域社會와 敎育機會問題에 대한 다각적이고 상세한 조사연구의 축적을 통한 開發理論의 定立에서 출발되어야할 것이다.

3. 要約 및 結論

本 硏究는 敎育機會의 空間的 不平等의 問題에 접근하기 위하여 敎育行動의 空間패턴과 一定地域의 社會經濟的 特性間의 關係分析을

통하여 敎育機會의 地域差를 說明하고 問題地域의 特性을 究明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本 硏究는 同一의 敎育機會空間은 同一의 社會地理的 空間과 有機的인 관련을 맺을 것이라는 基本假說을 檢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敎育機會變數로 中學校 進學率과 15~19세 연령집단의 就學率을 선정하였고 敎育機會의 地域差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數로는 社會, 經濟 및 學校變數가 선별되었다. 이들간의 관련성은 1975년의 173個 市·郡을 토대로 多相關關係分析이 행해졌다. 몇가지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에 있어서 敎育機會는 해방과 더불어 급속히 상승되었으며, 特히 農村地域에 거주하는 女性들에게 敎育機會가 현저히 개방되었다. 교육기회의 상승에 따라 地域間의 隔差도 다소 줄어들었으나, 上級學校에 이를수록 下級學校에 비하여 그 隔差는 크게 나타났다.

둘째, 敎育機會水準의 下級集團은 그 대부분이 周邊停滯地域에 分布하며, 이 地域에서는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隔差가 成長核心地域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것은 成長核心의 파급효과가 주변 농촌지역의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周邊地域의 성격이 강할수록 敎育機會水準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敎育機會空間과 社會地域的 行動空間間의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째, 敎育機會와 비교적 높은 相關을 보인 社會經濟的 變數는 農家人口率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및 주민의 敎育水準이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敎育機會水準은 크게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隔差로 대변되며, 純農村地域일수록 敎育機會水準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住民의 所得과 敎育水準이 낮은 社會經濟的 特性과 더불어 교육열망에 대한 農民的 思考와 관련지워졌다.

네째, 所得과 敎育水準變數를 비롯하여 空間構造로 인한 場所的 差異가 敎育機會의 地域差를 유발하는 基本要因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要因의 형성동기는 오늘날 한국적 현실에서 교육비의 부담능력과 교육열망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이것은 금후 事例地域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의 축적을 통해서 논증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敎育機會를 제약하는 다각적 요인을 발견하여 理論定立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기회의 不平等을 해결하기 위한 敎育行動地理學의 주요한 課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敎育機會問題에의 接近은 地域政策的 次元과 결합된 敎育政策의 수행으로 효율적인 敎育立地計劃과 두뇌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egionale Unterschiede der Bildungschancen in Korea

Young-Han Park*

Zusammenfassung;

Das Ziel dieser Untersuchungen besteht darin, die sozialökonomischen Strukturen des Bildungswesens und die daraus ableitbaren regionalen Disparitäten der Bildungsbeteiligung und das räumlich strukturierte Bildungsverhalten der Bevölkerung bis herunter auf die Ebene der Kreise zu erfassen, sie zu analysieren und die zugrunde liegende Ursachen aufzuspüren. Die Herstellung möglichst gleicher Bildungschancen für alle Regionen des Landes ist dabei das leitende Ziel.

Die Arbeit versteht sich insofern als ein Beitrag zur Sozialgeographie, speziell zur Geographie des Bildungsverhaltens. Die räumliche Relevanz der Bildungschancen wurde im ersten Teil der Arbeit im Vordergrund behandelt. Im zweiten Teil wurde die räumliche Differenzierung des Bildungsverhalt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gionalen sozioökonomischen Strukturen analysiert.

Auf der Grundlage der Basishypothese, daß zwischen der Intensität der Bildungsbeteiligung einer Region und ihrem sozioökonomischen Entwicklungsstand ein enger Zusammenhang besteht, wurden folgende Kriterien des Bildungsverhaltens als abhängige Variablen und folgende sozioökonomische Merkmale als unabhängige Variablen ausgewählt:

1) Abhängige Variablen für Bildungsverhalten

Y1: Übergangsquote von der 6. Klasse der Grundshule zur Mittelschule 1976

Y2: Der relative Schulbesuch der 15 bis 19 Jährigen 1975

2) Unabhängige Variablen für sozioökonomische Merkmale

X1: Bevölkerungsdichte 1975

X2: Bevölkerungszuwachs in % 1970 bis 1975

X3: Anteil der Agrarbevölkerung an der Gesamtzahl der Bevölkerung 1975

X4: Durchschnittliche Familiengröße 1975

X5: Lokale Steuereinnahmen pro kopf der Bevölkerung 1976

X6: Bruttoinlandsprodukt der Landwirtschaft, Forstwirtschaft und Fischerei je Einwohner 1976

X7: Bruttoinlandsprodukt der Industrie einschließlich Bergbau je Einwohner 1976

X8: Länge befestigter Straßen pro km² 1976

X9: Anteil der Zeitungsabonnenten je 1,000 Einwohner 1976

X10: Anteil der Grundschulabschlüsse und der Analphabeten an der Gesamtzahl der über 25 Jahre alten Bevölkerung 1975

X11: Anteil der Hochschulbesucher an der Gesamtzahl der über 25 Jahre alten Bevölkerung 1975

X12: Mittelschulplätze je Hoherer Schulplatz

Journal of Geography, vol. 11, 1984. 12., pp. 1~19.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6

Die Untersuchung führte zu folgenden Ergebnissen.

1) Von 1970 bis 1975 ist die Bildungsbeteiligung auf dem Lande schneller gewachsen, als in den Städten. Das beruht auf der Tatsache, daß Bildungschancen bei den Frauen in den ländlichen Gebieten besonders stark anwachs. Daher wurden die regionalen Dispäritaten hinsichtlich der Bildungschancen verringert. Vergleicht man die Provinzen Südkoreas miteinander, so stellt man fest, daß die regionale Disparität zwischen den ländlichen Räumen dieser Provinzen wesentlich größer ist, als die regionale Disparität zwischen den Städten der Provinzen.

2) Die meisten Regionen geringer Bildungsbeteiligung finden sich auf dem Lande in den peripheren Räumen. Die abgewanderungsbedingte "soziale Erosion" in den ländlichen Räumen tragte zu einer Verstärkung ihrer Bildungsbenachteiliung bei.

3) Die unabhängigen Variablen, die im Zusammenhang mit den Variablen der Bildungschancen stärkere Korrelationskoeffizienten aufweisen, sind die Agrarbevölkerungsqoute, lokale Steuereinnahmen pro Einwohner, sowie die Variablen des Ausbildungsniveaus. Die Zusammenfassung dieser Variablen ergibt im wesentlichen folgende Ergebnisse: Die Stärke der Bildungsbeteiligung ist um so größer, je höher das Einkommen und das Bildungsniveau ist, und je niedriger der Anteil der Agrarbevölkerung in einer Region liegt.

Daraus ergibt sich, daß die regionale Ungleichheit der Bildungschancen auf der sozioökonomischen Disparität zwischen den Städten und den ländlichen Gebieten beruht. Es ist zu sehen, daß das regionale Bildungsgefälle Folge des sozioökonomischen Gefalles und des sozialgeographische Hintergrundes ist. Die Bildungsbenachteiligung in den ländlichen Räumen resultiert aus der finanzielle Mehrbelastung und aus der niedrigeren Bildungswilligkeit.

Die ursächliche Erklürung für die regionalen Unterschiede des Bildungsverhaltens und für die geringe Bildungsbeteiligung ist durch eine Phase des Arbeitens "vor Ort" bedingt.